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세요

### 추석과 닭고기 소비 패턴

#### 닭과 한가위

'한가위(추석)'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중의 하나이다. 이때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바라다(加也勿 減夜勿 但願長似嘉佛日)"라고 했다. 한가위는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이 날처럼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이처럼 한가위 차례상에는 빼놓지 않고 닭이 올라온다. 지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가정에서 차례상에 백숙용으로 닭 1마리가 통째로 올라온다. 최근에는 찜닭이나 튀김닭을 올려 함께 모인 가족들 위주의 실속있는 가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위날'에 농촌에서는 닭잡이 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남도지방에서는 닭싸움을 즐기기도 했다고 전해 온다. 닭싸움은 AI발생 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하나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풍속으로만 남게 되었다.

#### 닭 가격 추석 전 10일 강세후 하락 패턴

1년 중 닭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는 7월 전후 복시준이며, 다음으로 최대 명절이 끼어 있는 설과 추석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격 형성 추이를 보면 복시준을 제외하고는 설과 추석명절에는 가격형성이 높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에는 명절을 겨냥해 입추가 몰려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복절 이후 추석 특수 이외에는 비수기 철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각 계열사들이 창고에 비축한 닭들을 수급에 맞게 방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2008년부터 최근 5년까지 추석 전후의 육계가격을 살펴보면 추석 전과 이후의 소비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통 추석은 9월 중순에서 10월초에 대부분 걸쳐있다. 복경기 이후 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다 추석 10일 전부터 본격적인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추석 다음날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다. 1주일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반등하여 정상가격을 회복하는데는 2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평균가격을 보면 추석을 기점으로

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여 추석 전 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래적으로 추석 전에 신종플루라는 변수가 작용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조기출하가 이루어지면서 추석 이후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급상승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2009년을 제외하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의 패턴이 추석명절 전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다양한 닭 제품 추석선물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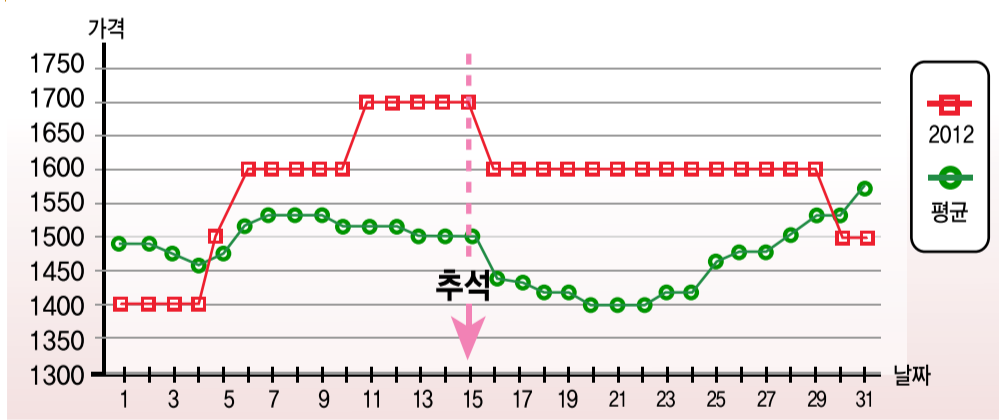
과거에는 닭을 차례상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각 계열사들로부터 다양한 닭고기 선물세트들이 출시되면서 닭고기 소비의 한

패턴을 이루고 있다. 닭가슴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닭가슴살로 만든 선물세트'와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훈제 처리를 한 '훈제 선물세트'가 가장 인기리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룽지나 엄나무 등을 이용한 특수한 '삼계탕 선물세트'도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가격대도 2만원에서 8만원선까지 부담이 없는 선에서 판매가 되면서 단체 구입 등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는 태풍 등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이 가을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을 맞이하여 육계가족 여러분 가정에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 추석 전후 육계가격 비교



##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한강씨엠(주) 김 상 관 농가협의회 회장

한강씨엠(주)는 지난 8월 29일 라비돌 리조트에서 농가협의회 창립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연품은' 화성대표 김상관 씨가 농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회사의 발전과 농가의 권익보호 및 수익향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농가협의회 창립행사장에서 만난 김상관 농가협의회 회장은 타 계열주체에 비해 깔끔한 이미지 때문에 7년간 한강씨엠(주)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운을 뚫다. 김상관 농가협의회 회장은 한강씨엠(주)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에는 우선 사육비를 최소한 20일 안에 결제해 준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감추지 않고 농가에게 충분히 공개해 준다는 점도 김상관 농가협의회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관 회장이 농가협의회를 대표하는 직분을 담당하게 된 이상 농가 대표로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가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닭고기 자조금 거출 및 농가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김상관 농가협의회 회장의 생각을 들어봤다.



한강씨엠(주) 박길연 대표이사(좌)와 김상관 농가협의회 회장(우)이 농가와 회사가 함께 사는 방안을 강구하자며 악수하고 있다



인터뷰

농가와 회사가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농가협의회를 만들어 갈 것

자조금은 농민 혼자로는 불가능한 정책 개정 등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사업 농가의 애로사항을 회사에 전달하며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

■ 닭고기 자조금 거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강씨엠(주)의 농가들은 자조금을 납부하는 농가도 있는 반면, 납부하지 않는 농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FTA협상 등으로 인한 수입산 닭고기의 증가로 자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조금 사업은 농가를 위해서 운용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농가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처음 자조금 사업이 생겼을 당시만 해도 농가들이 벌어도 좋지 않은데 자조금까지 거출한다는 얘기에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가는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현안들을 자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미신고 계사의 양성화 조치와 같은 정부의 정책 개정 시 농민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수입닭고기 저지운동 같은 농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발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농가들은 자조금을 거출함으로써 농가의 목소리를 내고 국내산 닭고기를 홍보할 수 있도록 자조금관리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자조금관리위원회는 농가에 필요한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으로 그 성과를 농가에 돌려주게 되므로 자조금 거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닭고기 자조금 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조금의 운용에 있어서 농가의 권익보호 활동과 더불어 닭고기 소비촉진 사업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무리 자조금을 통해 수입닭고기를 저지하고 농가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해서 양계농가의 사육현실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닭고기를 찾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매체 광고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찾아서 먹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농가협의회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농가협의회 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점은 회사와 농가가 함께 잘 사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가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는 길을 찾기 위해 발로 뛰며 한강씨엠(주)이 육계사업을 지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회사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불합리한 점도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되, 농가와 회사가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미니인터뷰



한강씨엠(주) 박길연 대표이사

■ 농가협의회 창립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말이듯이, 회사와 농가가 오래도록 함께 하기 위해 농가협의회 창립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는 과욕과 부도덕 때문”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씨엠(주)는 욕심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농가들을 대하며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닭고기소식지 54호에 게재된 <충남지역 농가들 계열사 사육비 삭감에 분쟁조정 신청 대응> 제하의 기사 중 '8월부터 한강씨엠(주)이 일방적으로

사육비를 인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사육비를 포함한 모든 협의 사항들은 농가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한강씨엠(주)은 사육비 조정 등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사항들은 농가협의회를 통해서 합법적 절차를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 한강씨엠(주)의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 사육과 동물복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공장 신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가 높아진 소비자에게 수입산과는 차별화된 우수 국내산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사육 시스템으로는 경기도와 소비자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G마크 친환경 사육을 통해 장염과 콕시듐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시스템으로는 전기충격이 아닌 가스주입으로 닭을 질식시키는 출하시스템(멕시코도 상차)을 도입해 차별화된 닭고기를 생산해 나갈 것입니다.

H O T  
ISSUE

0 0 2

# 구구데이 페스티벌, 9월 9일은 닭고기와 계란이 9昧 당기는 날

통큰 할인판매 및 닭고기요리 시식 행사로 소비자의 마음 사로잡아



구구데이에 참석한 양계관련 단체장들과 홍보대사 클라라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지난 9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2013년 제 11회 대한민국 구구데이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9월은 닭고기와 계란이 9昧 당기는 날'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느덧 10년을 넘어 11회째를 맞이하며 더욱 더 풍성한 이벤트와 참여마당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축산경영과장 등 축산기관 단체장과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사)한

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원 안승춘 회장 등 소비자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페스티벌의 개막을 축하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닭고기는 1고3저(고단백,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저지방)의 건강식품이므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뿐 아니라 연세가 많은 분들도 닭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닭

국제육협회 정병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등 양계관련 단체장,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축산신문 윤봉중 대표 등 축산전문 기관장, 한

고기는 국민들과 가장 친숙했던 육류로 예로부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닭고기를 대접했다"고 전했다. 또한 "닭고기가 수많은 세월 동안 소비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닭고기의 훌륭한 영양 성분 때문"이라며 "앞으로 양계농가는 더욱 더 노력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의 닭고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하공연으로는 비보이그룹 '인사이드 플로우'가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 닭고기의 스토리가 있는 댄스 배틀을 펼쳐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구데이 홍보대사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강미인 클라라가 위촉되었으며 앞으로 1고3저의 건강식품 닭고기와 계란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막식 후에는 양계관련 단체장들과 홍보대사 클라라가 소비자들에게 2013 인분의 닭고기·계란 볶음밥을 배식하며 점심시간대에 청계천을 찾아온 관광

객들과 시민들, 직장인들에게 닭고기의 맛과 영양의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부위별로 닭고기요리를 전시해 닭고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건강에 좋은 7색7미 효소 맛닭을 전시해 닭고기의 광범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또한 닭고기 옥돌 바베큐, 닭 효소불고기를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해 웰빙시대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특히 '우수브랜드 통큰 할인행사'를 통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다양한 구색을 갖춘 닭고기 제품을 소개하고 닭고기 제품 소비에도 기여했다.

전시행사로써는 구구데이의 의미와 닭·계란의 안전 소비를 볼 수 있는 '구구데이 홍보 Wall', 닭의 성장과정과 모이주기 체험, 계란 싹풀 꾸러미 만들기 등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순서가 펼쳐졌다.

## 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

민감품목 선정 및 품목협상 본격 진행될 듯

한·중 FTA 6차 협상이 지난 9월 3~5일까지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개최되면서 1단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민감부문에 대한 보호범위가 정해지고 제8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이 품목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민감품목 선정과 양계를 포함한 축산업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중 FTA체결국과의 교역규모가 51%이기 때문에 FTA는 국제교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협상이 체결될 경우 그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는 타 FTA와 성격이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1단계협상과 2단계협상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미 6차 협상까지 끝내면서 품목 등을 정하지 않고 큰 틀을 규정하는 작업이 끝나면서 1차 협상은 이미 마무리되었다. 앞으로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는 민감품목 비율 등 품목을 분류해서 실행계획을 세우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에 합의된 품목군의 정의를 보면 일반품목군은 10년내 철폐되고 민감품목군은 10~20년내 철폐되며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제외와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을 정해서 구체화시킬 예정이어서 민감품목에 닭고기 등 양계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체결 현황을 보면 발효 및 타결된 국가가 미

국 EU를 포함한 47개국에 이르며 협상 중인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23개국이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1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중·일 FTA는 서로간의 의견차이로 중단상태에 있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약) 협상은 진행 중이고, 한·베트남/인도네시아 FTA 추가협상 최소화화 투자확대에 초점을 놓고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한·캐나다 FTA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나 내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협상이 이루어지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축제의 장'이 될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역대 가장 빠른 부스 신청 마감,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성공개최 기대돼

'2013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3)'가 '건강한 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을 주제로 오는 9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축산업 축제의 장'이 될 이번 박람회는 6월 28일 부스신청을 마감한 결과 214개 업체 총 850여개 부스로 역대 가장

빠른 기간에 부스가 마감돼 성공적인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람회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기존에 제기됐던 사전홍보나 부대행사 전시 공간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해 질적으로 완성도 높은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축산농가 방문율을 높이고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수송차량을 과거 20여대에서 200여대로 증차하는 등 농가 개별 교통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000여개 기초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와 전국 농축협 조합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 회원농가들에게 사전 홍보를 강화해 참여율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축산농가와 일반 시민 대상 콘텐츠를 확대하고 하루 5회 이상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그 외에도 대구 관내 주요 축산기업 생산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

했다. 특히 우수 전시업체 시상을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시켜 명실상부한 축산산업 최대 박람회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축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조망하고 축산업계의 흐름을 함께 공유할 이번 박람회를 통해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져 축산 관련 최고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H O T  
ISSUE

#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통해 성공적으로 국내산 닭고기 홍보

각 단체, 국내산 닭고기의 알찬 정보 및 닭고기 제품 소개



양계관련 각 단체장들이 개막식에 참가해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2013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알찬 정보와 다양한 닭고기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부위별 닭고기 제품을 소개했다. 또한 부위별로 요리할 수 있는 음식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닭고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관람객에게 안전한 국내산 닭고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부여하는 '국산닭고기 인증마크'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있어 믿고 국산닭고기 인증 제품을 구매할 것을 독려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품질보증마크'를

획득한 각 계열사 제품을 소개하며 소비촉진 활동에 나섰다. 주요 품목으로는 (주)하림의 자연실록과 통살 닭가슴살, (주)체리부로의 부위별 닭고기제품, (주)마니커의 닭터의 자연, (주)참프레의 치킨혼제, (주)올품의 자연에 좋은 닭 등을 전시하며 국내산 닭고기 제품을 소개했다. 또한 닭고기 요리책자 '치킨 레시피'를 선보이며 닭고기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관람객들에게 알려주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제품을 소개하고 '한닭인증마크'를 홍보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오골계 삼계탕, 우리맛닭 삼계탕, 토종닭 볶음탕, 토종

닭 혼제 제품을 전시하고 토종닭 혼제를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또한 '한닭인증마크' 예비 시안에 관람객들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한닭인증마크'를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각 단체 관계자들은 "국내산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내산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닭고기 생산업체인 (주)하림과 농협목우촌 등이 참가하여 국내산 닭고기 브랜드 제품 홍보에 동참하였다.

## 환경부, 축산농가의 입장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가설건축물 선라이트 허용, 왕겨·톱밥 도포시 처리시설 면제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 행정처분 신설 및 양성화 조치계획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양성화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에서는 축사 가설건축물 재질을 비닐하우스와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도 허용하며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했

다. 또한 육계·오리 등의 계사는 주로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처리시설 설치 기준 미달로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환경부는 개선안을 통해 2014년부터 비닐을 깔고 재입식 때 분뇨를 즉시 처리한 후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 등을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에는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혀 양계인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축사거리제한에 대한 기준 재설정 방침도 밝혔다. 현재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축종별 다른 이격거리(100~500m)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와 농축산부는 공동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적정거리제한을 위

한 연구용역(2014년)을 실시해 기준을 재설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무허가 축사도 허가·신고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전했다.

건폐율에 있어서는 현행 60%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60%까지 축사 건폐율을 확대 허용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개정을 독려할 것이며, 축사시설의 피난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피난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축사는 제외시킬 전망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에서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 위반

또는 입지제한지역에 설치 시에 폐쇄명령을 신설했으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또한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의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이 일자, 이번 공청회에서 폐쇄명령에 대한 유예기간을 3~5년으로 늘리고 과징금도 1억원 이하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처리의무에 대한 규정 및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농가의 경영환경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축산농가는 전자인계시스템 농가 의무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부담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2012년 농림업 생산액 전년 대비 7.3% 증가한 46조 3,571억원

닭 생산액 2조 900억원, 계란 1조 3,6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2년 농림업 총생산액이 46조 3,57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의 43조 2,141억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서, 농업 부문은 44조 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고, 임업부문은 2조 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다.

2012년 농림업 부류별 생산액은 재배업의 경우 가격상승으로 전년보다 7.2% 상승한 28조 2,066억원이었으며, 축잡업은 생산물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한우·돼지, 우유 등의 생산량 증가에 따

라 전년보다 7.0% 증가한 16조 937억원이었다.

품목별 농림업 생산액 상위 품목의 순위는 ①쌀(미곡) ②돼지 ③한우 ④닭 ⑤우유 순이며, 이들 상위 5개 품목이 전체의 44.8%에 해당하며, 꾸준히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업 생산액에서 미곡(1위)을 제외하고 상위 5위내에는 모두 축산업 부문이 차지하였다. 미곡, 돼지, 한우(06년부터 한우·육우로 구분), 닭, 우유는 '05년부터 상위 5위권 유지하고 있으며, 오리(7~10위)은 하락하였다.

또한 ⑥견고추 ⑦계란 ⑧딸기 ⑨인삼 ⑩오리까지 포함한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의 58.3%이며, 이들 중 축산업 부문이 6개(2~5, 7,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리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순위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가격하락으로 10위로 순위 하락하였다.

닭 생산액은 2조 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고, 계란 생산액 또한 1조 3,6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한우와 돼지가 각각 3조 2,630억원과 5조 3,4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

17.7% 증가하였으며, 오리는 1조 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2% 감소하였다. 우유 생산액은 2조 1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농림업 생산액 및 비중

구분	생산액(억원)	비중(%)	전년대비증감(%)
쌀(미곡)	81,175	17.5	1.4
돼지	53,482	11.5	17.7
한우	32,630	7.0	14.9
닭	20,900	4.5	△4.4
우유	20,118	4.3	21.8
견고추	15,969	3.4	23.4
계란	13,662	2.9	△12.4
딸기	11,888	2.6	33.0
인삼	10,831	2.3	1.6
오리	10,451	2.3	△25.2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방안 공청회 개최

##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적용 방침

지난 9월 4일 aT센터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법 제정 방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됨에 따라 농작업 사고, 질병 등의 안전재해 발생가능성이 커지면서 농업인의 안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농축산부는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보험과 관련해 올해 2월 국정과제에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을 반영하면서, 현재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을 국가 정책보험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측에서는 정책·예산을 총괄하고 보험사업은 정부와 보험사가 약정을

체결하고 보험상품을 판매(정부는 보험료·운영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보장수준은 급격한 재정부담 증가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입대상은 농업인,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 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의 농작업 근로자이며, 가입방식은 의무가입제 도입시 보험기피 고령자의 반발과 위헌소지 등을 우려하여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해당 제정안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와 더불어 심도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 농업인의 기본적인 재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 도입은 환영할만 하나 크게 증가하게 될 재정문제와 기존 민영보험사에 농업인이 임의가입한다는데서 얼마나 많

은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의문과 보상범위를 넓힘에 따른 농가의 자부담 보험금 증가로 가입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농가의 보상기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올릴 경우 보상금액 산정에 있어 농업인의 소득 산출이 정확히 되어야 하나 농업인의 특성상 소득산출을 위한 증빙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농업인 재해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사회보험으로 출발해야 하며, 의무가입 도입,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필요하다고 입

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전체 농림축산식품산업에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사업지원으로 지출되다 보니 가장 기본적인 농업인들의 재해보상에 할당되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해당 제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을 요청하였다



### 육계질병가이드 / 콕시듐의 생활사

Q. 육계를 사육하면서 흔하게 경험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콕시듐증인데요. 이 원인체인 콕시듐의 특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콕시듐증(Coccidiosis)은 양계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원충성 질병인데요. 이러한 콕시듐 원충이 소화관벽에 기생함으로써 발병하는 소화기성 질병입니다. 이러한 콕시듐증은 설사와 장염, 혈변을 특징으로 하며 증체를 저하와 출하일령의 지연으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원충에 의한 기생충성 질병으로 이들은 숙주 특이성이 강하며 계군에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평사에서 사육하는 육계 외에도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산란계에서도 간혹 발병하여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콕시듐의 원인체는 포자충류에 속하는 Eimeria spp. 원충입니다. 닭에 감염되는 종은 9종이 있으며 각각의 원충들은 기생하는 부위 등 숙주에 대한 특이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소장 상부에 E.acervulina, 소장 중부에 E.necatrix, 소장 하부에 E.brunetti, 맹장에 E.tenella 등 서로 기생부위가 다른 특이성 그리고 종에 따라서 병원성이 강하고 약한 차이가 나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감염부위와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원충의 감염 여부에 따라 증상과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콕시듐 원충의 낭포를 닭이 섭취함으로써 감염되며 오염된 분변, 젖은 깔짚 등의 환경에서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감염된 원충은 장점막 상피세포에 친화성이 있고 세포 내 기생하며 2번의 무성생식과 1번의 유성생식을 거쳐 증식된 후 분변을 통해 배설됩니다. 포자가 형성된 원충만 감염성이 있고, 1개의 원충이 감염되어 약 10만개의 후대 원충으로 증식되어 콕시듐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닭은 감염된 종에 대해서만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다른 종의 원충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지 못합니다. 배설된 충란은 포자가 형성되어 있으며 외부 환경에 저항성이 강하여 보통 10~14개월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콕시듐 원충은 소독약에 저항성이 강하나 건조, 열에는 약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기금진료 연구소〉

### (주)체리부로 무항생제 닭고기+해초샐러드 출시



(주)체리부로(김인식 회장)는 지난 8월 22일 신제품 '무항생제 닭고기+해초샐러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무항생제 닭고기+해초샐러드' 제품은 병아리부터 닭고기까지 각 단계별 엄격한 사양관리 및 친환경 양계 맞춤형 전문 사료로 사육된 무항생제 닭고기와 미네랄이 풍부한 해초, 이에 곁들여 풍미를 더해주는 허브맛 소스가 한 팩으로 구성된 제품이다.

(주)체리부로 관계자는 무항생제 닭고기가 육계계열화업체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취급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40여개 이상의 친환경 사육 인증농가에서 정성껏 사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물질을 첨가한 맞춤사료로 건강하게 키

우고 있으며 철저한 닭고기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고 첨단에어질링 라인에서 생산되어 맛과 신선함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주)체리부로 마케팅 담당자는 "이번에 출시한 '무항생제 닭고기+해초샐러드'는 점차 늘어가고 있는 1인 가구를 겨냥하여 구성된 제품으로 성인 기준 2~3회분으로 소화할 소량 포장과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1회 조리 후 냉장보관을 통해 차가운 상태에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사대용으로 기획되었다"라고 밝혔다.

신제품 '무항생제 닭고기+해초샐러드' 이마트 전국 150여개 매장에서 가슴살 350g, 복채 350g의 두 가지 제품으로 만나 볼 수 있다.

##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3년 8월)

(단위: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조장준	조산농장	134,400 (268,800)	경기 파주시 조리읍
최희수		80,860 (809,720)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옥례	해피농장	201,600 (813,327)	전남 곡성군 겸면
차영상		435,000 (435,000)	
이봉재	경인농장	111,000 (339,06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천면
백성순	성경농장	192,000 (780,810)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한민진	호박골농장	92,000 (267,0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이동용	갈현농장	200,000 (800,000)	충남 서산시 성연면
문종길	성우농장	164,070 (763,020)	경북 영천시 북안면
이상길	한마음농장	100,000 (30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이순준	노티농장	120,000 (480,000)	충남 논산시 노성면
류금현	(토종닭)	85,000 (85,000)	충북 대천시 유성구
이종수		300,000 (300,000)	

\* 8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1,646,530원이며, (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 하림 도계장 자조금 납입농가 현황

##### 하림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1월

농장명	금액	축종
조건택	191,574	육계
최은숙	286,140	육계
박승용	163,500	육계
박대순	132,300	토종닭
정암균	99,630	육계
합계	873,144	

##### 하림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3월

농장명	금액	축종
박승용	153,210 (316,710)	육계
최은숙	253,740 (539,880)	육계
합계	406,950	

##### 하림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5월

농장명	금액	축종
이영재	164,850 (338,820)	육계
남천우	146,340 (302,718)	육계
최은숙	288,717 (828,597)	육계
박승용	154,275 (470,985)	육계
박상천	63,000 (63,000)	육계
박병호	216,234 (597,144)	육계
합계	1,033,416	

##### 하림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2월

농장명	금액	축종
남천우	156,378 (156,378)	육계
상운농장	227,142 (227,142)	육계
박병호	201,900 (201,900)	육계
이영재	173,970 (173,970)	육계
조건택	178,950 (370,524)	육계
합계	938,340	

##### 하림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4월

농장명	금액	축종
박상운	194,592 (194,592)	육계
이생구	188,040 (188,040)	육계
박병호	179,010 (380,910)	육계
김영구	154,980 (154,980)	육계
정암균	110,940 (210,570)	육계
조건택	188,100 (558,624)	육계
합계	1,015,662	

##### 하림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6월

농장명	금액	축종
김영구	146,880 (301,860)	육계
이생구	189,552 (377,592)	육계
조건택	179,832 (738,456)	육계
합계	516,264	

#### 한강CM 도계장 자조금 납입농가 현황

##### 한강CM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1월

대표자	납입금액	주소
송관석	207,510	경기 양평군 단월면
양안석	160,860	경기 양평군 청운면
박규덕	169,410	경기 양평군 개군면
최정규	90,600	경기 양평군 양동면
합계	628,380	

##### 한강CM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4월

대표자	납입금액	주소
이영근	153,360 (153,360)	경기 양평군 지평면
합계	153,360	

##### 한강CM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6월

대표자	납입금액	주소
최정규	100,500 (288,000)	경기 양평군 양동면
양병기	70,530 (70,530)	경기 여주군 능서면
합계	171,030	

##### 한강CM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3월

대표자	납입금액	주소
양안석	166,950 (327,810)	경기 양평군 청운면
박규덕	167,790 (337,200)	경기 양평군 개군면
최정규	96,900 (187,500)	경기 양평군 양동면
박태운	153,510 (153,510)	경기 양평군 청운면
합계	585,150	

##### 한강CM 도계장 납입농가 2013년 5월

대표자	납입금액	주소
박규덕	175,080 (512,280)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합계	175,080	

### (사)대한양계협회



#### 2013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양계산물 홍보부스 운영



지난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에 걸쳐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각종 우수축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축산물 브랜드 페스

티벌에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본회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각종 양계산물을 소개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방문객들을 상대로 닥트 게임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양계 캐릭터 상품과 양계산물을 나누어주고 닭고기와 계란 관련 퀴즈를 풀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있어 오해하기 쉬운 닭고기, 계란에 대한 상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 당진지역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개강

본회에서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하여 오는 9월 24일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 축산업 종사자 교육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2,500㎡를 초과하는 농가이며, 종축업·부화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교육대상에 포함된다. 금번 교육은 사육기간이 3년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시간은 8시간이며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차량등록요령, 친환경 동물복지 축

산환경으로 4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당진지역 올해 허가대상농가는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www.farmedu.kr)에 접속하여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해당지역 본회 소속 회원은 지부에서 단체로 접수를 받고 있는 만큼 지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축산종사자 교육비는 농가 부담으로 진행되어 8시간 교육의 경우 교육생 1인 2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제 3회 양계사진 공모전 실시



내산 닭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를 위해 닭고기조사금사업의 일환으로 제3회 양계사진 공모전을 연다.

입상 작품은 1년 내내 모든 소비홍보 행사에 전시되며 특히 10월에 열리는 한담인 대회에 전시되며 닭고기 자조금사업의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주제는 닭과 관련된 생활 속 다양하고 자연스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한 사진, 아름다운 농장과 닭,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닭고기 요리 및 시식 모습, 기타 닭 관련 사진 등이다.

접수기간 : 2013년 9월 16일 ~ 27일

최종심사발표 : 2013년 10월 초 심사를 통해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입선 20점 등 총 26점을 선발해 10월 열리는 한담인 대회에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본 협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제 3회 양계사진을 공모한다. 우리고유의 전통과 멋이 살아있는 양계사진을 일반인에게 소개함으로써 국내 양계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1고3저 (고단백,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 저지방)건강식품인 국

'제 1회 한담인 대회' 개최 예정

본 협회는 토종닭산업발전에 기여한 모든 분들을 모시고 '제 1회 한담인 대회'를 개최한다. 극대화하고자 기획, 추진하게 되었다.

제 1회 한담인 대회 일정표

본 대회는 협회의 10주년과, 3대째 육종사업으로 토종닭의 종자를 지켜낸 농업회사법인(주)한협의 6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하는 대회로서 더욱 뜻 깊게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 토종닭 '한담'은 역사와 전통, 문화 속에 발전해왔으며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처럼 우수한 토종닭 '한담'을 재조명하고 중요성을 알리며 한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담을 수출하여 한식, 한우와 더불어 정부의 한식세계화 노력에 의미를 더하고 이를

항목	시간	내용	
1일차	12:30 ~ 13:00	교육 등록 및 접수	
	13:00 ~ 13:30	한류와 함께하는 '한담'	
	13:40 ~ 14:10	정부의 축산 정책	
	14:20 ~ 14:50	시 방역 관련 교육	
	15:00 ~ 15:30	GPS	
	15:30 ~ 16:00	토종닭 산업 발전방안 / 토론회	
	15:50 ~ 16:00	기념대회 등록 및 접수	
	16:00 ~ 17:30	식전행사	개회 선언 내·외빈 소개 개회사 / 축사 / 환영사 토종닭의 어제와 오늘 한협 종자 회고
		시상식(장관, 유관기관 등)	양계사진 공모전 시상식
		토종닭 '한담' 홍보대사 위촉식	협회 티 / CI 선포식
		토종닭 비전 선포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폐회
		17:30 ~ 18:00	장내 정리 및 장소 이동
		18:00 ~ 19:30	저녁 만찬
		19:30 ~ 22:00	토종닭 종사자 화합의 밤
		22:00 ~	방 배정 및 취침
		07:00 ~ 09:00	기상 및 조식
	2일차	09:00 ~ 11:00	체육대회 / 산책(단풍놀이)
11:00 ~ 12:00		경품 추첨 및 기념품 증정	
12:00 ~		정리 및 귀가	

일시 : 2013년 10월10일(목) 13시 ~11일(금) 12시 (1박2일)  
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 그랜드홀 (충남 천안시 수신면 수신로 576)  
주최 : (사)한국토종닭협회, 농업회사법인(주)한협  
주관 : 닭고기조사금관리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계육협회, (사)대한양계협회, 농협중앙회

우리농수축산물 페어 참가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 토종닭 홍보관 마련

「우리농수축산물 페어」가 iMBC 주최로 지난 9월 5일(목) ~ 8일(일) 4일간 서울 성산동 소재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수축산물 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생사를 통해 지자체 경제활성화와 창조코리아 프로젝트를 실현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계층 간 소득, 문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한국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세계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고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본 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토종닭 홍보관을 마련하고 농가, 일반소비자 및 생산자, 문학인, 요리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VIP 등 초청자, 참가자를 대상으로 토종닭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벌였다. 특히 홍보관에서는 토종닭 혼제, 우리맛닭 토종삼계탕 시

식과 토종닭볶음탕, 닭곰탕, 닭백숙 등 다양한 제품과 토종병아리를 전시해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시식행사와 더불어 진행한 다양한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3년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도 참가부스를 마련하여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이날 김연수 회장은 "소비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종자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했다.

농경연, 공급량과 수요량 감소로 9월 육계 산지가격 1,500~1,600원으로 전망

8월 중순 폭염과 길어진 추석 연휴로 인해 닭고기 공급량 감소 예상

9월 육계 산지가격은 추석 연휴가 길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8월 폭염으로 인한 종계 생산성 하락과 계열업체의 자율감축으로 병아리 생산량과 육계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여 9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3.3% 감소한 5,499만 마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도계 마릿수는 추석연휴로 인한 도계일수 감소로 전망치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9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19.1% 증

가한 8,458톤으로 전망했다. 비축물량이 전년 동월보다 감소하여 8월 11일 기준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22.1% 감소한 619만 마리라고 설명했다.

금년 추석(9월 19일)은 중순이며 연휴가 길어 닭고기 수요는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농경연은 판단했다.

이처럼 농경연은 닭고기 공급량의 감소와 수요 하락으로 9월 육계 산지가격은 1,500~1,600원/kg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기간 도계 마릿수와 닭고기 수요 감소 정도에 따라 산지가격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닭고기 공급량 및 수요량 변화에 따른 가격예측

\*단위: 원/kg

구분	전년대비 닭고기 공급량			
	전년수준	2.5% 감소	5.0% 감소	
전년대비 닭고기 수요량	전년수준	1,538	1,610	1,682
	3.0% 감소	1,458	1,535	1,605
	5.0% 감소	1,404	1,486	1,552

Today's  
맛있는  
닭고기 요리

## 닭 안심 튀김과 칠리볶음

닭 가슴살 안쪽에 붙어 있는 '닭 안심살'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매우 낮아 담백한 닭고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부위이다.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을 곁들인 칠리소스는 바삭한 닭 안심 튀김에 감칠맛을 더할 것이다.



- 재료** 닭 안심 300g(밀간: 청주 1큰 술, 마늘 1/2큰 술, 후추, 맛소금), 완두 20g, 녹말 1/3컵, 식용유
- 칠리소스** 케첩 1/2컵, 물엿 1/4컵, 고추장 1/2큰 술, 다진 마늘 1/2큰 술, 다진 생강 1/2큰 술, 청주 1과 1/2큰 술, 레몬즙 1/2큰 술, 고추기름 2큰 술, 다진 양파, 당근, 파인애플 각 1과 1/2큰 술

Cooking

1. 닭 안심은 넓게 편 후에 청주, 마늘, 후추, 맛소금을 뿌려 재워놓는다.
2. ①의 닭 안심에 녹말을 입혀 180°C의 끓는 식용유에 튀긴다.
3. 완두는 삶아 냉수에 건진다.
4. 칠리소스는 고추기름에 다진 마늘, 생강, 양파, 당근, 파인애플 순으로 볶다가 케첩, 물엿, 고추장, 청주, 레몬즙을 넣고 걸쭉하게 끓여 소스를 만들고 완두와 ②의 닭 안심 튀김을 넣고 버무려 접시에 담는다.

<제공: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 퀴즈 낱말맞추기

1		10			
				9	
2	3			8	
		4		7	
5					
	6				

◇ 가로풀이 ✨ ✨

- ① 역사 기사, 보도 기사 따위의 문장을 쓸 때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② 문서 따위에 기록하여 올림
- ④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 ⑤ 예술 작품에서 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사상
- ⑥ 정형적 거래에 대한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내용을 모아놓은 계약서식
- ⑧ 산길을 걸어감

◇ 세로풀이

- ① 부화한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영양공급과 예방접종 등에 주의를 기해야 하는 시기
- ③ 기업의 경영활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요약한 재무보고서
- ⑦ 지진의 진동을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계
- ⑨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사육하여 생산되며,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
- ⑩ '원자력 발전소원자핵이 붕괴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를 줄여 이르는 말

55호 정답

ㅅ	ㅈ	ㅊ	ㅋ	ㆁ	ㅇ
		ㄹ		ㅅ	ㅈ
	ㄹ	ㅅ	ㅇ	ㅈ	
ㅅ	ㅈ		ㅅ	ㅈ	ㄹ
	ㅅ	ㄹ		ㅅ	
	ㅅ	ㅈ	ㅇ	ㅈ	



양계  
비법전수

## 지열을 이용하여 계사 냉방과 난방을 하는 기술이 공급합니다.

지열은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지표면의 토양, 지표수, 지하수, 용암 등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C의 지하수 열을 히트펌프로 변환하여 여름철에는 10~15°C, 겨울철에는 45~50°C의 온도를 유지시켜 냉난방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온도는 지하 10m부터는 깊이가 깊어져도 1~2°C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열냉난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30년간 기상통계, 계사

의 형태, 사육밀도, 환기량 등을 토대로 얼마나 열량이 필요한지 부하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열냉난방 방식은 수직개방형으로써 열교환에 사용한 지하수는 지하 450m로 보내서 계속해서 재순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관정은 450m 깊이로 2개 관정을 천공하고 관정 1공당 지열히트펌프 2기(기당 15RT)를 설치하고 히트펌프 1개당 덕트를 한 개씩 연결하여 계사 내부에 열 공급 덕트 4개를 연결하여 균

열하게 열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으며 지역과 계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존의 축사의 환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가동될 때에는 환기시스템이 중지되고 냉난방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때에는 환기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